

[여수·순천·광양]

순천시 “광양만권 통합 MOU 체결을”

순천대 공과대학의 광양 이전을 둘러싼 지역내 반발이 광양만권 통합논의 재점화로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광양만권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공문을 광양시에 보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2일 순천대 공대 이전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안에 광양만권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순천시도 노 시장의 같은 제안

광양시에 공문…광양 “남해·하동·고흥도 포함해야”

순천대 공대 이전 논란 증폭…통합 논의로 재점화

에 따라 23일 광양만권 통합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여수·순천·광양지역 행정협의회 개최 공문을 광양시에 보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행정협의회 개최 여부를 검토중이나 아직 최종 입장은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양시는 여수와 순천·광양 지역 3개 도시뿐 아니라 남해군과 하동·고흥을 포함한 광양만권 대통합에 찬성한다는 기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의 같은 입장은 전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광역경제권 통합

을 주창한 이명박 당선인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순천시와 여수시는 이른바 광양만권 대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3개 도시만으로도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이어서 광양시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역갈등 조장 안돼…대화로 풀겠다”

장만채 순천대 이전 관련 입장 밝혀

장만채 국립 순천대 총장이 지역 현안으로 부상한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과 관련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장총장은 28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여전히 조성되며 공대의 광양 이전을 포함해 대학과 지역

의 발전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고 “순천대 공대의 광양 이전은 대학 존립과 경쟁력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선택임을 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총장은 “공대의 광양 이전과 관련해 순천 시민들이 보여주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직접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고 촉구했다.

“다”고 말하고 “대학의 교권과 자율을 침해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공대 이전 문제를 지역 갈등 조장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 지역 기업의 입장을 낙천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순천대가 공대의 광양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순천시와 4월 총선 예비후보 및 시민들은 장 총장 사퇴 등을 주장하며 공대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가막만 수산물 구매해 주세요”

여수시·여수산단 캠페인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과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근로자들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수산물 구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하루 1만4천여명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가막만 산물을 주 2회 이상 소비할 계획이다.

또 여수시와 여수국가산단 공동발전협의회는 산단 근로자 및 기업체의 선물용으로 굽을 구입하는 한편 2월 20일께 거북공원에서 가막만 굽먹기 체험의 날 행사도 개최한다.

여수지역 수산물 위관왕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서해안 기후유출 여파로 굽과 흉합 소비가 줄어들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막만 알굴의 경우 택배비를 포함해 3kg 1상자가 2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만 거울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열고 털진이나 부상으로 구조됐다가 치료와 적응 훈련을 마친 독수리와 수리부영이, 황조롱이 등 야생 조류 9마리를 방생했다. 2천640만㎡(800만평) 규모의 순천만에는 250만㎡의 갈대밭이 조성돼 있고 천연 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거울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다.

여수 돌산 노인전문요양원 30일 개원

물리치료실·일광욕실 등 갖춰

여수 돌산 노인전문요양원이 30일 개원한다.

돌산은 우두리 마을에 문

건립한 돌산 요양원은 부지 4천 97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생활실과 물리치료실, 목욕실, 일광욕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돌산 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들이 생활하게 된다.

대림산업, 여수산단에

1,160억원대 설비 증설

대림산업이 여수국가산단단지 내에 화학제품 원료인 폴리부텐 설비를 늘린다.

대림산업은 오는 2010년 1월 완공을 목표로 1천160억원을 투자해 폴리부텐 생산 설비를 증설할 방침이다.

이 설비가 완공될 경우 대림산업의 폴리부텐 생산능력은 현재 연산 7만5천t에서 14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엑손 모빌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규모를 갖게 돼 시장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폴리부텐은 절연성이 우수해 전기절연재와 접착제, 윤활유 등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대림산업만이 독점 생산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웃사랑

태안 원유유출 복구 성금 5억원 기탁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태안 원유유출사고 복구 성금 5억원을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광양제철소 허남석 소장은 28일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송영수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5억원의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0억원을 기탁했으며 이중 전남 지역 원유유출사고 복구 성금으로 5억원을 특별 배분했다.

허소장은 전달식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서해안

행복주주가 되어주세요!



해역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되찾고, 생계를 지원하는데 뜻깊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와 외주 파트너 사 직원 860여명은 원유 유출사고 이후 충남 태안군을 비롯한 영광·신안군 등지에서 타르 냉어리 방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모범학생 87명에 ‘방한용 점퍼’ 선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학교장이 추천한 모범학생들에게 설립으로 방한용 점퍼를 선물했다.

광양제철소는 28일 광영동 광영초등학교에서 87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900만 원 상당의 점퍼 87벌을 전달했다.

이들 학생들은 각 학교장이 추천한 모범학생들에게 설립으로 방한용 점퍼를 선물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천만원의 기금을 기탁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잊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광양 ‘명품 교육도시’ 육성 나섰다

2002년 전국 첫 조례제정

341억원 투자 환경개선 주력

광양시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341억 원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투자했다.

광양시는 또 성적이 뛰어난 초·중생들이 방학 중에 영어캠프와 영재교육원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외국어 경연대회에

입상한 중·고생들에게 해외 연수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 중·고교생 10명이 40일 간 일정으로 미국 텍사스주 그린베리 중·고등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적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과 기숙사비, 보증 수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각종대회 입상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1년 설립한 백운장학회에 현재까지 총 44억 5천500만 원을 출연해 그동안 1천 660명에게 17억 3천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2002년 전국 첫 조례제정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452-8535)	나주시 332-5544 나주군 332-7764
광 양 792-8111 (534-5151)	해 남 554-6677 (746-8111)	화 순 374-4423 화 도 392-2100
보 성 853-9700 (351-0055)	영 광 243-3758 (543-0100)	장 성 383-8111 장 진 434-6830 장 평 324-8111
순 천 842-2121 (783-8111)	구 름 473-2340 (944-0444)	광 산 863-8822